

瑞山 仁旨面 先史遺跡 調查報告

—— 特히 支石墓를 中心으로 ——

李 殷 昌

目 次

- 一. 序 言
- 二. 遺跡概況
- 三. 支石墓
- 四. 仁旨面 先史文化的 性格

一. 序 言

瑞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海岸線의 出入이 複雜한 곳인데 이 瑞山地方의 海岸과 島嶼 一帶에서 先史遺跡을 調查할 수 있었다. 앞서 高北面에서 立石 三基를 찾아 美術資料 第三號에 紹介한(1) 바 있고 이어서 瑞山邑의 溫石里 立石洞立石 一基와 禮川里 公林洞立石 一基를 찾아 美術資料 第五號에 紹介한(2) 바 있으며 또 大山里 出土 石鏃을 古文化 第二輯에 紹介하였다.(3) 이 밖에도 各處에서 先史遺跡이 發見되었는데 特히 仁旨面의 支石墓와 其附近에서 出土된 石器와 土器 等은 重要한 遺跡이며 또한 貴重한 新資料라 하겠다.

1960年 11月 下旬에 仁旨面 支石墓를 調查(4) 하였는데, 當時 仁旨國民學校 教師 柳相鉉氏의 引導를 받아 現地를 踏査하였다. 그리하여 菴堂里와 南井里에서 많은 支石墓를 發見하였고 그 後 數次에 걸쳐 支石墓를 實測하고 撮影하여 이곳 支石墓의 實態를 把握할 수 있었다. 그리고 支石墓가 群落된 菴堂里와 南井里를 비롯하여 隣接한 艾井里와 花秀里 等地에서 石斧·石鏃·石刀·石錘 等이 收拾되었고 또 菴堂里 堂栗洞 土城址에서 土器片을 採集할 수 있었다. 偶然한 機會에 이러한 先史遺跡을 調查할 수 있었고 石器와 土器 等を 收拾할 수 있었음은 實로 歡喜의 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先史時代의 社會와 文化의 研究資料로서, 先史遺跡의 分布狀況을 把握하는 資料로서 貴重한 價値가 있다고 忖料되며 또 앞날의 計劃的인 發掘調查의 基礎資料가 될가 하여 이에 調查된 支石墓를 紹介하고 仁旨面 先史遺跡에 對한 몇가지 考察되는 바를 記述하려고 한다.

二. 遺 跡 概 況

仁旨面 先史遺跡地는 豐田里·菴堂里·南井里·艾井里·花秀里 等 一帶인바 東은 伽倻山이 멀리 솟아 있고 西는 浮石半島에 接하여 있어 都飛山이 가로막고 北은 高岳이 連立하여 막히고 南은 활짝 열려 淺水灣 海濱에 臨하여 있으니 곧 아늑한 丘陵을 마련 하였다.

- (1) 美術資料 第3號 拙稿「忠南의 立石 數例」參照
- (2) 美術資料 第5號 拙稿「忠南의 立石 數例(續)」參照
- (3) 古文化 第二輯 拙稿「瑞山 大山里 出土 石鏃」參照
- (4)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拙稿「瑞山地方의 先史遺跡 發見」參照

瑞山邑에서 泰安으로 가는 道路로 約 2 km쯤 가게되면 瑞山邑 禮川里와 仁旨面 豐田里와의 境界地點에 나서게 되는데 이곳 右側(北쪽)은 標高 120 m 되는 行梯山이 있어 山頂에 原始型의 土城址가 있고(圖版 第一) 左側(南쪽)은 公林洞 丘陵地帶의 卵形臺地를 이룬 밭 가운데에 立石 一基가 있다. 이곳에서 西南쪽으로 뻗어나간 支路로 河川이 흐르는 低地를 건너 仁旨·浮石 方面을 向하여 約 1 km쯤 가게되면 仁旨面 所在地가 나서게 되는데 仁旨面 先史遺跡地는 여기서부터 中心地域에 들어가고 있다. 이곳 平地는 面事務所·支署·學校·民家 등이 있는 村落을 이루었고 村落 뒤(北쪽)로는 標高 80 m되는 菴敦山이 있어 山頂에 또 原始型 土城址가 있으며(5)(圖版 第一) 이 土城址 西麓 丘陵上에 典型的 南方式 支石墓(圖版 第二 參照)가 數基 配置되어 있는데 이 丘陵과 下麓에서 石斧·石鏃·石錘 等 石器類가 出土되고 있으니 이곳 支石墓를 菴堂里 第一區 支石墓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더욱 낮은 陵線을 타고 西行하여 約 800 m 地點에 이르면 다시 隆起하여 標高 約 80 m 되는 堂山이 있어 亦是 山頂에 原始型 土城址가 있고(圖版 第一) 이곳에서 無文土器片과 有文土器片(圖版 第四 參照)이 出土되고 있다. 이 土城址에서 東南走하는 낮은 丘陵이 있으니 堂栗洞에 이르러서 丘陵은 두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東쪽 丘陵 松林속에 南方式 支石墓 一基와 形態不明인 支石墓 一基가 南北으로 있으니(圖版 參照) 이를 菴堂里 第二區 支石墓라 하고 西쪽 丘陵 밭가운데에 亦是 南方式 支石墓 二基가 南北으로 있으니(圖版 第三 參照) 이를 菴堂里 第三區 支石墓라 하려고 한다.

堂栗洞에서 浮石으로 가는 小路를 잡아들어 또다시 700 m 西行하게 되면 南井里에 나서고 이곳에서도 石斧·石鏃 等 石器가 出土되는데 標高 160 m의 秀峴에서 貢稅洞 깊숙한 골짜기를 두고 左右로 두갈래의 낮으막한 山줄기가 東南走하였는데 左側 丘陵 南端(標高 30 m) 松林間에 있는 七基의 南方式 支石墓(圖版 第三 參照)를 南井里 第一區 支石墓라 하고 右側 丘陵 南端(標高 30 m) 밭가운데에 있는 四基의 南方式 支石墓(圖版 第四 參照)를 南井里 第二區 支石墓라고 한다.

支石墓가 所在한 地帶와 其附近 一帶에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石斧·石鏃·石刀·石錘 等 磨製石器(圖版 第四 參照)가 出土되고 있어 支石墓 分布地인 同時에 石器 散布地를 形成하고 있다. 이 石器 散布 地域은 더욱 擴大되고 있으니 前記 支石墓 地帶에 隣接하는 艾井里와 花秀里가 包含되는 바 곧 菴堂里와 南井里를 中心으로 隣接한 艾井里·花秀里·豐田里를 一地域으로 仁旨面 先史遺跡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 先史遺跡地에서는 住居址로 推定되는 遺跡을 發見하지 못하였으나 丘陵이룬 地形인 支石墓 分布地와 石器 散布地의 遺跡 等은 先史人의 住居를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三. 支 石 墓

支石墓는 앞서 대강 말한바와 같이 菴堂里와 南井里에 걸쳐 所在하고 있는바 或은 二基씩 或은 四基씩 或은 七基씩 小群을 이루고 이 小群이 모아 仁旨面 支石墓의 大群을 이루는 分布 狀態를 보이고 있다. 그 支石墓가 所在한 地番과 地目を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菴堂里 第一區 支石墓……菴山洞 山 25의1 (七基)
2. 菴堂里 第二區 支石墓……堂栗洞 山 337의2 (二基)
3. 菴堂里 第三區 支石墓……堂栗洞 田 362의2 (二基)
4. 南井里 第一區 支石墓……貢稅洞 山 217의2 (七基)
5. 南井里 第二區 支石墓……井洞 田 148의1 田 150의1 (四基)

이곳 支石墓는 위와 같이 五地區로 分布되어 있음에 注意되어야 하겠다. 總數 二十二墓인데 이는 各區

(어리성)

(5) 瑞山地方의 原始城郭인 土城址는 本文에 記述된 行梯山土城址·敦山土城址·堂山土城址 以外에 雄梳城(音岩面 遊溪里)·道堂里土城(音岩面道堂里)·栗木里土城(音岩面栗木里)·環城里土城(地谷面環城里)等이 處處에 散在하고 있다. 모두 낮은 丘陵上에 土築한 小規模의 城郭으로 土城址는 數條의 層段을 形成하였고 土城內 또는 그 隣近에서 石器·土器片을 出土하는 例가 있는 등 이들 土城址의 研究가 注目되는 바이다.

에 現存하는 撐石(蓋石) 또는 支石(足石) 등을 통하여 推定된 것이고 耕作地化로 또는 石材 利用으로 破壞가 甚하고 埋沒되었으니 元來는 보다 많은 支石墓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1. 菴堂里 第一區 支石墓

菴敦山 土城址 西麓 標高 40 m 程度の 丘陵에 群落된 支石墓가 곧 菴堂里 第一區 支石墓(圖版 第二 參照) 이다.

丘陵의 鞍形臺地 北斜面에 近世의 民墓가 있고 그 옆에 位置한 典型的인 南方式 支石墓 一基가 곧 第一號 支石墓(圖版 第二 參照)이다. 이곳에서 東南쪽으로 21 m 地點 亦是 鞍形臺地 밭가운데에 撐石(蓋石) 一部가 보이고 大部分 埋沒된 것이 곧 第二號 支石墓이다. 이 第二號 支石墓에서 11 m 東北方 第一號 支石墓에서 25 m 東方인 三角地點의 路邊에 亦是 撐石(蓋石) 一部가 靈出되고 大部分 埋沒된 것이 곧 第三號 支石墓이다. 다시 第一號 支石墓에서 約 50 m 西쪽 卵形臺地를 이룬 西北 斜面 松林사이에 6 m 間隔을 두고 破壞殘石이 있어 또 支石墓 二基가 推定되니 南쪽 것을 第四號 支石墓, 北쪽 것을 第五號 支石墓라 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約 50 m 西南쪽 松林에 4 m 距離를 取하여 岩塊가 殘存하고 있으니 亦是 支石墓 二基가 認定되는 바 南쪽 것을 第六號 支石墓, 北쪽 것을 第七號 支石墓라 하겠다. 總七基로 推定되는 支石墓 群中 第二號 支石墓와 第三號 支石墓는 埋沒로 極小部分의 撐石(蓋石)이 보일 뿐이고 第四號 支石墓와 第五號 支石墓는 全破되어 石材로 搬出된 나머지 石片이 殘存하고 있을 뿐이며 第六號 支石墓와 第七號 支石墓는 岩體에 鑿痕을 남긴채 破壞攪亂되어 있으므로 이곳 支石墓의 構造와 形態를 모르겠다. 다만 第一號 支石墓(6) 만은 完全한 모습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어서 典型的인 南方式 支石墓임을 알 수 있고 이밖의 것도 이에 準하여 南方式 支石墓로 推定된다. 또 第一號 支石墓는 撐石(蓋石)이 扁平한 岩盤形인데 對하여 第七號 支石墓는 立體모습의 岩塊形으로 推測되는 바 이곳 支石墓는 岩盤式 撐石(蓋石)과 岩塊式 撐石(蓋石)이 混在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1) 第一號 支石墓(圖版 第二 參照)

花崗岩 石材를 利用한 것인바 四個의 支石(足石)이 大略 口字形으로 짜인 위에 長軸을 南北으로 두고 巨大한 岩盤式 撐石(蓋石)을 놓은 構造로 되었다. 撐石을 破壞하려다가 그만둔 정 맞은 구멍(鑿痕)이 있는 以外는 仁旨面 諸 支石墓들 가운데서 가장 完全한 것이다.

撐石(蓋石)은 長이 370 cm, 幅이 290 cm 乃至 270 cm, 厚가 65 cm 乃至 100 cm의 數値를 지닌 不整形 岩盤으로 되었다. 支石(足石)은 東·西·南·北으로 配置되어 곧 長方形으로 짜이었으니 地表에 나타난 數値는 東쪽 것이 高 40 cm, 幅 65 cm, 西쪽 것은 測定不可能하나, 大略 東쪽 것과 같고 南쪽 것은 高 40 cm, 長 118 cm, 幅 70 cm로 以上 三個는 不整形 石塊이며 北쪽것은 長 200 cm, 幅 100 cm, 厚 23 cm의 長方形 板石이다. 그리고 이들 支石(足石)이 撐石(蓋石) 東側으로 치우쳐 있는데 東·西·南 三個는 섰고 北 一個는 板石을 같은 모양으로 누었으니 이는 元來 서있던 것이 北端部의 地形이 傾斜로 因하여 虛함으로 後代에 넘어진 것같이 推測된다. 支石(足石)이 撐石(蓋石)의 東側으로 偏在하였고 北쪽 支石(足石)이 누어있기 때문에 撐石(蓋石)이 西쪽과 北쪽으로 기울었은즉 西端(背面)은 地面에 닿았고 南端은 空間 40 cm나 더있는데 北쪽은 겨우 25 cm쯤 떠 있다. 發掘하지 못하였으므로 墓室 構造와 副藏品에 對한 內容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이 附近에서도 아무런 遺物을 찾지 못하고 다만 이 支石墓 南方 約 20 m 地點에서 兩尾式 三角形 石鏃(圖版 第四 參照) 一個를 採集 하였을 뿐이다. 總高 140 cm에 大體로 短脚平板床을 形成하였으니 이른바 典型的인 南方式 支石墓로 羅州 支石墓(7)·高興 雲垵里 支石墓(8)·扶安 龜岩里 支石墓(9) 등 西海岸 地帶에 分布하고 있는 南方式 諸 支石墓의 構造와 形態에 類似한 것이다.

2. 菴堂里 第二區 支石墓

(6)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拙稿「瑞山地方의 先史遺跡發見」 「(三) 支石墓」條

(7) 韓國史 古代篇「史前時代의 遺跡과 遺物」 「墳墓」條

(8)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圖版 第48「南朝鮮의 支石墓」 및 同解説 參照

(9) 李弘植著 讀史餘滴「湖南地方의 碑인돌(支石墓)」



插圖 1. 保寧 珠山面 三谷里 支石墓

菴堂里 堂栗洞 東쪽 줄기인 標高 30 m 程度 丘陵의 西傾斜面 잔디 위에 南北 一直線上으로 8 m 間隔을 두고 岩石이 配置된 北쪽 것은 破壞된 岩塊가 殘存하는 것으로 이를 第一號 支石墓라 하고 南쪽 것은 地表에 一部分을 露出시킨 岩石으로 이를 第二號 支石墓라 한다. 兩基 모두 元形을 찾아 볼 수 없는 破壞殘石이고 다만 이곳 土質과 周邊環境 등으로 보아 人爲의인 느낌을 주는 岩塊임에서 支石墓로 推定될 뿐이다.

(1) 第一號 支石墓

現存하는 岩塊는 花崗岩으로 實測值의 長 120 cm, 高 60 cm로 三角柱를 가로 놓은 形態인바 盜掘者의 所行인지 石材를 利用함인

지 破壞 搬出된 나머지 石片으로 推測되는데 現存하는 岩體에도 鑿痕이 보이고 또 두갈래로 갈라진채 放置되어 있다. 이 岩塊는 撐石(蓋石)의 殘存部分으로 支石(足石)이 보이지 않으니 곧 岩塊形 撐石(蓋石)이 支石(足石) 없이 直接 地面上에 놓인 構造로 推定된다.

3. 菴堂里 第三區 支石墓

菴堂里 堂栗洞 西쪽 줄기인 標高 30 m 程度의 丘陵이 鞍形臺地를 이룬 발가운데에 南北 一直線上에 6 m 間隔으로 配置되었으니 北쪽 것을 第一號 支石墓라 하고 南쪽 것을 第二號 支石墓라 한다.

(1) 第一號 支石墓

頁岩 石質로서 不整 多角形의 扁平한 岩盤株 撐石(蓋石)이 支石(足石)의 附屬이 없이 直接 地表上에 安置의 모습을 維持하고 있다.

撐石(蓋石)의 南端部가 破缺되었는 바 現存하는 것의 實測值는 長軸이 170 cm, 短軸이 140 cm, 厚가 30cm로 元來 長軸을 南北으로 取하고 있는 것이다. 發掘하여 보지않아 地下構造와 副葬品 內容은 亦是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支石墓의 類例로는 일찌기 大邱 大鳳洞(10) 支石墓의 第一區 第二支石墓의 撐石例가 있다.

(2) 第二號 支石墓

第一號 支石墓에서 南方으로 6 m 地點 발 가운데에 있다. 頁岩 石質로 不整 四角形의 扁平한 岩盤式 撐石(蓋石)이 長軸을 南北으로 取하여 地表上에 놓였는데 實測值는 長이 235 cm, 幅이 100 cm, 厚가 30 cm로 比較的 작은편이다 西端은 支石(足石)이 附屬되어 있고 東端이 若干 기울어졌다. (11) 支石(足石)은 撐石(蓋石) 西端 밖으로 빠져 나온 三角部分이 40 cm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支石墓의 構造는 江華島 松

(10) 朝鮮古蹟研究會刊 1938年度 古蹟調查報告「大邱大鳳洞支石墓調査」

(11) 撐石을 支石으로 떠받치고 있는 構造로 卍字形·卍字形·二字形等 北方式 支石墓의 例가 있는가 하면 數個 石塊를 不規則하게 놓인 南方式 支石墓의 例가 있는데 이밖에도 一個 支石으로 撐石 한쪽을 떠 받치고 있는 特殊構造가 있음에 注目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類例로는 다음과 같다.

—北方式 支石墓—

1. 江華島 松海面 下道里支石墓 (三上次男著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參照)

—南方式支石墓—

1. 扶餘郡 恩山面 桂谷里支石墓(筆者調査)

2. 扶餘郡 恩山面 新大里支石墓(有光教一著 朝鮮扶餘新發見의 石劍·銅劍·銅鈴 參照)

3. 保寧郡 珠山面 三谷里支石墓(筆者調査 考古美術 第四卷 第八號 拙稿 參照)

4. 北九州 須玖岡本支石墓(京大考古學研究報告 第11册 筑前須玖 史前遺跡の研究 參照)

海面 下道里(12) 支石墓(一個 支石을 가진 北方式 支石墓) 例의 踏躋이라고도 하겠는데 去般에 筆者는 扶餘郡 恩山面 桂谷里 支石墓와 保寧郡 珠山面 三谷里 동실洞의 南方式 支石墓中에서 (挿圖1 參照) 이러한 例를 調査한 일이 있다.

4. 南井里 第一區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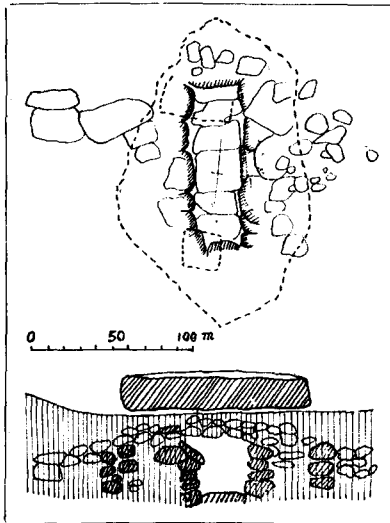
南井里 公世골(貢稅洞) 入口 左便 山尾 標高 30 m의 丘陵에 松林이 있고 松林 西편 傾斜面에 近世의 民墓 數個가 있어 附近은 잔디로 갈려 있는데 이 松林과 잔디에 걸쳐 推算 七基의 支石墓가 있는바 部落民들이 이를 「七星바위」라 하고 奇異한 岩塊群으로 생각하고 있다. 畧 南北 20 m, 東西 15 m의 좁은 區域內에 3 m 乃至 5 m의 距離 間隔을 두고 七基의 支石墓(圖版 參照)가 集團되어 있다.

이곳 支石墓도 破壞와 攪亂이 甚하여 完全한 것은 一基도 없다. ① 正 맞은 구멍(鑿痕)을 남기고 一部를 缺失한 撐石(蓋石). ② 人工적으로 깨어 龜裂이 나서 갈라져 있는 撐石(蓋石). ③ 埋沒되어 一部分만을 露出시킨 撐石(蓋石) 등이 雜然하고 集群되어 있어 그 撐石(蓋石)의 長軸 方向이(南北으로 長軸을 取한 것으로 推定됨) 確實치 못하고 構造와 形態 또한 正確히 把握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不完全한 支石墓들이지만 이를 通하여 扁平狀의 岩盤式 支石墓와 立體狀의 岩塊式 支石墓 등이 混在하고 있고 數個 石塊로 짜인 支石(足石)이 있는 支石墓와 支石(足石)이 없이 地表上에 그대로 놓인 支石墓 등이 並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저 大邱 大鳳洞 支石墓(圖版 參照)를 비롯 하여 南方式 支石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類例이다. 特히 이곳 支石墓는 ① 좁은 面積에 여러 撐石(蓋石)이 가까운 距離로 接近되어 있는 點 ② 大小 여러 撐石이 한 場所에 混集되어 있는 點 等으로 보아 各個가 獨立된 一基씩의 支石墓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 이들 撐石(蓋石)의 全體를 合쳐 數個의 支石墓를 構成하고 있다고 推定하여(14) 봄직한 것으로 저 大黑山島 支石墓群(15)과 共通되는 點이 있다.

5. 南井里 第二區 支石墓

南井里 第一區 支石墓에서 西쪽 相對便 公世골(貢稅洞)과 샘골(井洞)을 境界하는 標高 40 m의 丘陵이 끝지는 南端 傾斜面 발 가운데에 仁旨面에서 浮石面으로 通하는 舊路를 두고 길 위에 二基, 길아래에 二基, 總 四基의 支石墓가 推定된다. (圖版 參照)

그 配置 狀態를 살펴 보면 높은 地帶로 부터 길 위쪽 西편에 第一號 支石墓가 있고 第一號 支石墓에서 東南쪽으로 7.2 m 距離에 第二號 支石墓가 있으며 또 第一號 支石墓에서 東南쪽으로 13.5 m, 第二號 支石墓에서 南쪽으로 10.2 m 距離의 길아래에 第三號 支石墓가 있으며 다시 第三號 支石墓에서 東쪽으로 13 m, 第二號 支石墓에서 東南쪽으로 20.3 m 距離 더욱 낮은 곳에 第四號 支石墓가 있다. 이곳 支石墓의 配置가 前記 南井里 第一區 支石墓에 比하여 淸정한 位置를 取하고 있으니 이는 耕作關係로 破壞除去된 것인가 하며 現存하는 것도 破壞攪亂되었고 位置變動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니 亦是 撐石(蓋石)의 形態와 長軸의 方向도 分間하기 어렵다. 다만 第一號 支石墓에 있



挿圖 2. 大邱 大鳳洞 第一區 第二支石墓 平面圖 及 斷面圖 (扁平狀의 岩盤式 撐石)

(12) 三上次男著 滿鮮原始墳墓の研究 「朝鮮半島における支石墓」의 「支石墓の構造および方位」

(13) 考古美術 第四卷 第八號 拙稿 「湖西地方의 先史遺跡調査」

(14) 支石墓의 築造에 있어서 北方式은 地上構造에 注力하였기 때문에 支石墓의 地上形態에 불 만 한것이 많다. 그리고 北方式支石墓에서 南方式支石墓에로 移行된 直後에 있어서도 亦是 地上構造에 注力하였고 南方式支石墓의 初期것은 地上形態의 壯觀을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時代가 흘러 墓制가 變遷됨에 따라 撐石(蓋石)·支石(足石)等 支石墓 地上構造는 極히 略化되어 一種 墓標 程度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15) 國立博物館 特別調査報告 韓國西海島嶼 「大黑山島遺跡」의 「支石墓」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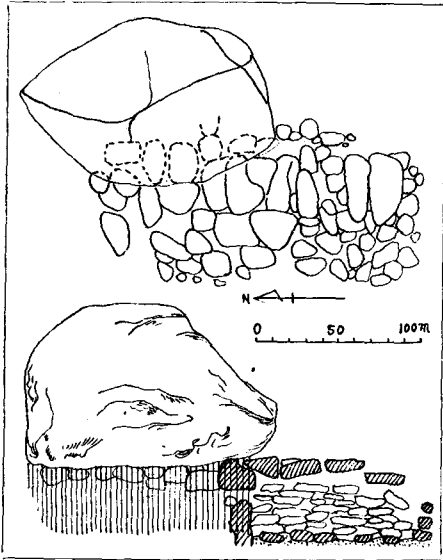


插圖 3. 大邱 大鳳洞 第五區 第一支石墓 平面圖
及 斷面圖 (立體狀의 岩塊式 撐石)

어서는 岩盤形 撐石(蓋石) 西端 밖으로 三角錐形의 支石(足石)이 솟아 있는데 元來는 이 支石(足石)에 撐石(蓋石)이 없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는바 이는 支石墓로서의 構造를 계법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第一號 支石墓를 비롯하여 이곳 諸支石墓가 岩盤形 撐石(蓋石)으로 된 南方式 支石墓인것 같은데 모두 撐石(蓋石)과 支石(足石)等 外形의 構造에 盡力한 點은 보이지 않고 다만 一種의 墓標로서의 存在인 것 같이 생각 된다. 이러한 傾向은 濟州島의 支石墓(16)와 日本 北九州의 支石墓(17)에서도 볼 수 있어 이곳 支石墓는 南方式 支石墓 中에서도 그 年代가 흘러간 後代로 보아야 하는 것 들이다.

四. 仁旨面 先史文化的 性格

以上 記述한 支石墓·石器·土器를 통하여 본 仁旨面 先史時代의 文化樣相을 要約하여 보기로 한다. 仁旨面 先史人은 앞서 말 한바와 같이 淺水灣이 깊이 內入한 海岸 丘陵地帶에 자리 잡고 그곳에 典型的인 南方式 支石墓를 構築하고 精密한 磨製石器를 考案 製作하여 生活道具로

삼았고 또 無文土器와 有文土器를 使用하는 등 西海岸 地帶의 金石併用期의 文化를 形成하였다.

支石墓는 充分한 調査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우 地上에 露出된 支石墓의 形態만을 살폈고 支石墓下의 墓室構造와 副葬品 狀況을 把握 할 수 있는 調査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對하여는 後日의 發掘 調査의 時期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考察된바의 仁旨面 支石墓의 特異點을 든다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支石墓의 位置는 丘陵地帶의 傾斜面·鞍形臺地·南端기슭 등이 選擇되었고

둘째 支石墓의 配置는 三·四基 乃至六·七基씩 一小群을 이루고 다시 小群이 合하여 大群을 形成하여 仁旨面 支石墓群이 되었으며

셋째 支石墓의 構造는 數個 石塊로 짜인 支石(足石)으로 撐石(蓋石)을 받고 있는 것과 支石(足石)이 없이 地表上에 撐石(蓋石)이 그대로 놓인 것이 並存하고 있으며

넷째 支石墓의 撐石(蓋石)에 있어서도 扁平狀의 岩盤式 撐石과 立體狀의 岩塊式 撐石 등 二種의 形態가 混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仁旨面 支石墓의 位置한 地形·配置된 狀況·築造된 構造·撐石의 形態 등이 모두 南方式 支石墓의 特色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으며 또 그 特徵이 綜合된 것으로서 곧 原始農耕社會인 金石併用期에 두어야 할 支石墓들이다. 그러나 石棺墓와 並存하는 複合形 支石墓로 되어 있는 大邱 大鳳洞 支石墓(18)·扶餘 羅福里 支石墓(19)·青陽 大坪里 支石墓(20) 등 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推測된다. 곧 仁旨面 支石墓가 北方式 支石墓에서 南方式 支石墓에로 移行된 얼마 後에 始作하여 中間頃 까지 걸쳐 存續된 것이라 고 보고 三上次男氏의 「北方式 支石墓가 紀元前 三世紀末 부터 紀元前 二世紀初 까지이며 南方式 支石墓

(16) 서울大學校 論文集 第九輯 金哲堉 「濟州道 支石墓 調査報告」

(17) 日本文化史大系 1. 繩文·彌生古墳時代編 「彌生文化」의 「社會의 變化」條

(18) ① 朝鮮古蹟研究會刊 1936年度 古蹟調査報告 「大邱 大鳳洞 支石墓調査」條

② 朝鮮古蹟研究會刊 1938年度 古蹟調査報告 「大邱 大鳳洞 支石墓調査」條

(19) ① 考古學雜誌 第28卷 第1號 有光教 「朝鮮扶餘新發見의 石劍·銅劍·銅鋒」

② 三上次男著 滿鮮原始墳墓의 研究 「朝鮮半島における 箱形石棺墓」

(20) ① 考古美術 第3卷 第5號 拙稿 「青陽 大坪里 出土 石器」 ② 美術資料 第5號 拙稿 「忠南의 立石 數例(續)」

가 紀元前 二世紀 以後 부터 紀元四世紀初 까지」라는 考證을 引用한다면 仁旨面 支石墓의 實年代는 紀元前 二世紀頃 以後인 金石併用期로 推定하여 볼적 하다.

仁旨面에서 骨角器나 金屬器 등은 發見된 일이 없고 다만 石器가 採集 되었을 뿐인데 그 石器는 石斧・石鏃・石刀・石錘 등 廣範圍한 種類와 여러가지 形態의 것이 多數 收拾되었다. 이들 石器만으로서는 仁旨面 先史遺跡地의 文化樣式이나 絶對年代를 推定하기에 充分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石器의 製作된 形態・技法 등을 通하여 當時의 先史人들의 生活 모습과 그 年代를 어렵프시 推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石斧는 모두 精密한 磨製이며 蛤形石斧가 그 主體로 되었고 石鑿에 가까운 特殊形態도 伴出되었다. 그 크기와 모양은 여러가지로 變化가 많으니 이는 當時 先史人들의 使用處와 用途에 따라 適宜 考案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 石斧에는 着柄法이 適用되기도 하여 石斧 使用의 效能을 얻었으리라고 믿어지며 그리고 石斧로서는 가장 進歩한 發達型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石刀 亦是 極盡한 精磨를 거친 것으로 그 製法은 極히 精巧하다. 形態는 韓國 各地에서 가장 出土例가 많은 半月形 石刀인바 이 半月形 石刀의 外彎뺨에 單뺨을 보이는 것은 斫器로서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苦心努力한 點이고 精密한 兩圓孔을 穿設한 것은 着柄을 目的으로 한 意圖일 것이다. 이 石刀가 摘穗用의 農具로서 使用되었다고 하며 또 切斷用의 一般 小刀로 利用되었다고 하는 說이 있는데 그 用處에 對하여는 이에 論及하고자 하는바 아니나 이 石刀가 農耕社會의 斫器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며 또한 金屬刀에로 轉換하는 前提品(21)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樣式의 石斧와 石刀는 저 中國 仰韶期와 殷代에 이미 盛用하였고 그것이 南滿洲 地方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金石併用期의 農耕社會의 道具로서 널리 分布되었으며 다시 日本에 傳播되어 彌生式 石器文化를 形成하였다. 여기 仁旨面 石器 散布地가 곧 原始 農耕社會의 遺跡일 것이고 그 石器는 菟堂里・南井里・艾井里 등 丘陵地帶에 散布되고 있으니 이 丘陵地帶를 根據로 定着 農耕生活이 이루어 졌으리라고 推定된다.

石鏃은 總5個인데 그 中 兩尾式 三角形 石鏃(圖版 第四 參照)은 無莖式 三角形系 石鏃의 가장 進歩된 發達型이며 또 有莖式 柳葉形 石鏃(圖版 第四 參照) 三個도 精巧한 製品으로 亦是 가장 進展된 發達型으로 銅鏃과 鐵鏃에 共通되는 樣式들이며 또 典型的인 有莖式 柳葉形 石鏃(圖版 第四 參照) 一個는 南方式 支石墓와 箱形 石棺墓 등에서 出土되는 副葬品들과 같은 樣式이다. 이러한 石鏃은 金石併用기에 두어야 할 것으로 一脈 原始 墳墓의 副葬品인 石鏃과 相通되기도 하지만 仁旨面 出土 石鏃들은 散布된 狀況이라든가 出土 境遇로 보아 實用品으로서 狩獵에 活用하던 것 같이 推定된다. 石錘는 有孔有溝石錘라 하겠는데 既往에 打擊法에 依하여 製作된. 先行的 打製石錘와는 달리 石錘의 몸을 다듬고 구멍(圓孔)을 뚫고 골(溝條)을 파서 끈으로 피고 잡아 댈 수 있도록 考案한 精製品으로서 漁撈에 活用하던 網錘로 推定된다. 이와 같은 石鏃과 網錘 등을 通하여 볼 때 仁旨面 遺跡의 先史人들은 이곳 丘陵地帶에 定着 農耕을 主體로 삼는 한便 또 狩獵과 漁撈의 生活手段도 그대로 存續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으니 곧 仁旨面 先史遺跡의 約 3 km 北方인 八峯山을 中心으로 한 高岳은 當時 狩獵하던 곳이라 하겠으며 南쪽으로 열린 淺水灣 앞바다는 當時 漁撈하던 곳이라 하겠다.

仁旨面 出土 石器가 特히 다음과 같은 一般的 傾向을 지니고 있어 그 石器文化의 性格을 보이고 있다. 첫째 石器의 製作이 精巧를 다한 精製品으로 가장 進歩된 磨製石器를 이루고 있다는 것.

둘째 石器의 形態가 青銅器 또는 鐵器 등을 伴出하는 金石併用期의 遺跡에서 出土되는 石器樣式을 하였다는 것.

셋째 石斧・石刀는 定着 農耕社會의 道具로서 典型的인 樣式을 하였으며 그것이 青銅斧・鐵斧・鐵刀 등이 發生하는 前提品(22) 이라는 것.

넷째 石鏃은 南方式 支石墓・箱形石棺墓의 副葬品으로 出土되는 石鏃과 樣式上의 共通性이 있으며 그것

(21) 梅原未治・藤田亮策編著 朝鮮古文化綜覽 第1卷 圖版第3 「渭原 龍淵洞 出土一括遺物」 10 鐵庖丁 및 同解説 參照

이 銅鏃과 鐵鏃(22) 과도 같은 樣式을 이루고 있다는것.

다섯째 網錘의 製作이 技妙하고 精密하며 日本 彌生式 石器와 相通된다는것 등으로 보아 仁旨面 先史石器文化는 扶餘·舒川·靈岩·小龍島·濟州島 等 西海岸 地帶와 島嶼地方의 石器文化와 또 慶州 九政里·蔚山 蔣峴里·慶州 附近等 南海岸 地帶의 石器文化와 또 日本 靜岡市 有東 第一遺跡·名古屋市 西志賀遺跡·大阪府 瓜破村遺跡等 彌生式 石器文化와의 聯繫的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仁旨面 石器의 實年代는 既述한 바 있는 支石墓와 같이 紀元前 二世紀頃부터 金海 初期까지로 보아야 하겠다.

土器는 完形土器를 發見하지 못 하고 總 9 個의 土器片이 出土되었는바 모두 四種類로 區分할 수 있으니 곧 ① 無文土器片 2 個 ② 押捺文 粗質土器片 2 個 ③ 集線文 精質土器片 3 個 ④ 格子文 精質土器片 2 個로 되어있다. 이곳 土器는 無文土器라하더라도 年代가 낮은 것이며 集線文 土器도 櫛目文土器의 一種이라 하겠으나 그 源流는 櫛目文土器에 있을지라도 櫛目文土器는 아니고 無文土器 文化와 有文土器 文化가 이미 相互交涉이 있는 兩 文化型이 融和된 以後의 土器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砂粒이 섞이고 吸水性이 많은 성근 胎土의 燒成度가 弱한 粗質土器(圖版 第四 參照)는 金海土器보다 若干 앞서는 것이며 灰青色·灰白色의 窯燒의 火度가 強한 陶質土器(圖版 第四 參照)는 金海土器에(24) 連結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土器의 實年代를 따지자면 亦是 前記 石器들과 大略 같은 年代로 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金海初期까지 繼續된 것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瑞山地方에는 仁旨面 先史遺跡 以外에도 隣接한 同一性格을 보이는 先史遺跡이 있으니 첫째 泰安半島의 石器 散布地로 柿木里 遺跡이 있어 魏志에 보이는 三韓의 「臣蘇塗國」과 關係지어 봄직하고(25) 둘째 大山半島의 石器 散布地로 大山里 遺跡이 있어 亦是 魏志에 보이는 三韓의 「致利鞠國」(26)과 關係지어 봄직 하며 셋째 浮石半島의 石器 散布地로 本稿에 問題를 삼고 있는 仁旨面 遺跡도 亦是 三韓의 어느 部族社會의 根據地로 볼 수 있음에 興味거리라 하겠고 뒷날에 百濟 基郡에(27) 該當되는 곳이다. 이곳 先史人들은 이와 같은 部族社會를 形成하면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支石墓를 構築하고 精密한 磨製石器와 各種 土器를 만들어 使用하며 西海岸 地帶에 先史文化를 이룩하여 왔다. 그러는 동안 北方에서는 西紀前 一世紀初 樂浪設置 以後 大陸의 鐵器文化(28)가 輸入되고 그것이 南韓으로 傳播됨에 따라 部族社會를 漸次 國家成立 段階로 發展시키어 王國으로 代置되자 이에 在來의 石器使用은 終止符를 짓게 되며 다시 鐵器로 代替되니 여기 새로운 鐵器文化가 形成되었다. 仁旨面의 支石墓·石器·土器等 先史文化는 國家社會가 成立되기 直前의 部族社會인 先史時代 末期에 該當되는 것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紀元前 二世紀頃 부터 金海時期初까지로 推定 할 수 있겠다.

(22) 前掲書 圖版第2·第3「渭原 龍淵洞 出土一括遺物」參照

(23)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3册 義城 塔里古墳「第6章 第II 墓槨의 調査」의 「利器」「VI 鐵鏃」條 및 圖版37 插圖 第10 參照

(24) 1920年度 古蹟調查報告 第1册-金海貝塚 發掘調查報告-「土器」條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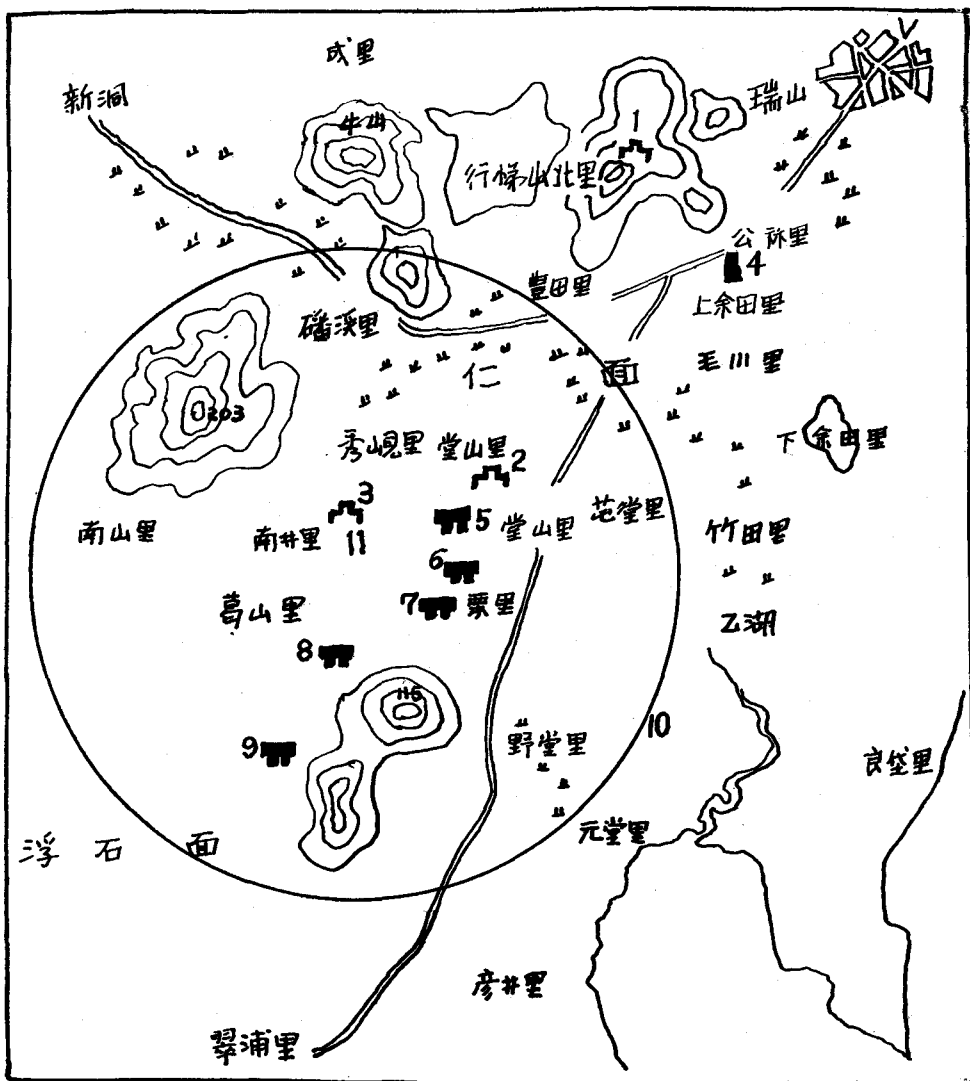
(25) 所遠面 柿木里 丘陵地帶에서 磨製石劍 1 個와 磨製石鏃 2 個가 出土되었는데(考古美術 第3卷 第11號 拙稿「忠南 發見 石器 數點」條) 이곳은 馬韓의 臣蘇塗國(魏志 馬韓條)에 通하는 것으로 百濟의 省大兮·新羅의 富城郡 蘇泰縣·지금 泰安으로 變遷된 것이다(韓國史 古代篇「三韓의 諸小國問題」).

(26) 大山半島의 環城里 土城址 附近에서 石斧 1 個와 石皿 1 個가 出土되고 大燕里 燕巢山에서 石斧 1 個와 石鏃 12 個가 出土되었는데(古文化 第2輯 拙稿「瑞山 大山里 出土 石鏃」條)이 石器 出土地가 馬韓의 「致利鞠國」(魏志 馬韓條)에 該當되는 것으로 百濟의 知六·新羅의 富城郡 地育縣·지금 地谷으로 變遷된 것이다(韓國史 古代篇「三韓의 諸小國問題」)

(27) 三國史記 卷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條「富城郡, 本百濟基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蘇泰縣, 本百濟省大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地育縣, 本百濟知六縣, 景德王改名, 今地谷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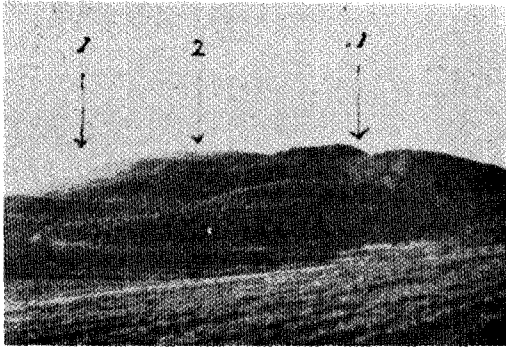
(28) 梅原末治·藤田亮策編著「朝鮮古文化綜鑑 第二卷 「樂浪文化」條 參照

圖版 第一 瑞山邑 仁旨面 先史遺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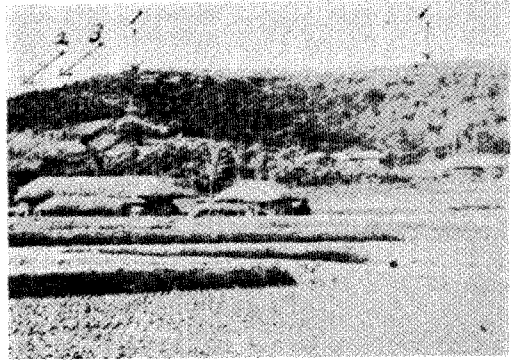


- | | | | |
|--------------|--------------|--------------|--------------|
| 1. 行梯山土城址 | 2. 菴敦山土城址 | 3. 堂山土城址 | 4. 公林洞立石 |
| 5. 菴堂里第1區支石墓 | 6. 菴堂里第2區石墓 | 7. 菴堂里第3區支石墓 | 8. 南井里第1區支石墓 |
| 9. 南井里第2區支石墓 | 10. 圓內…石器散布地 | 11. 土器出土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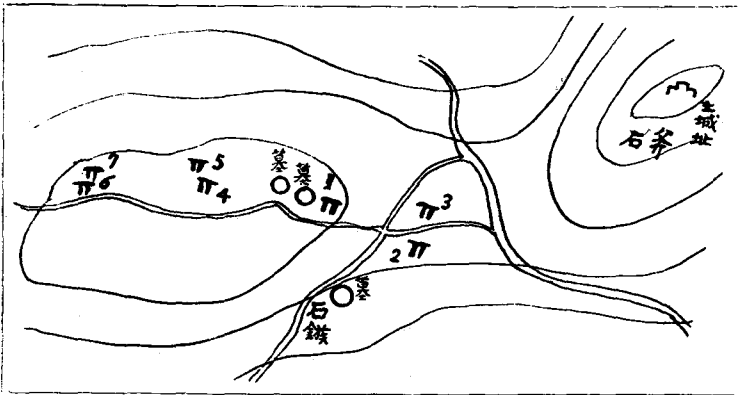
圖版 第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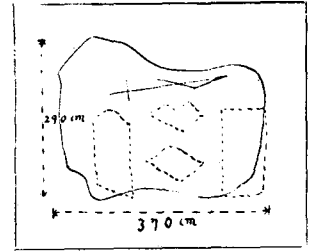
1. 菴敦山 土城址 2. 支石墓 3. 石器出土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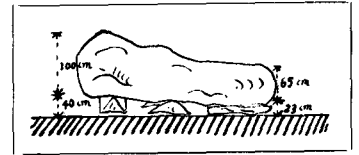
1. 堂山 土城址 2. 土器出土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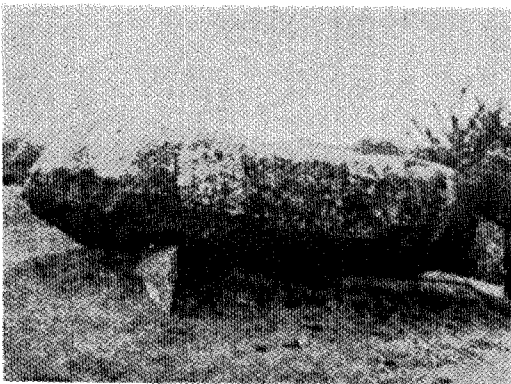
菴堂里 第1區 支石墓



第一號 支石墓平面圖



第一號 支石墓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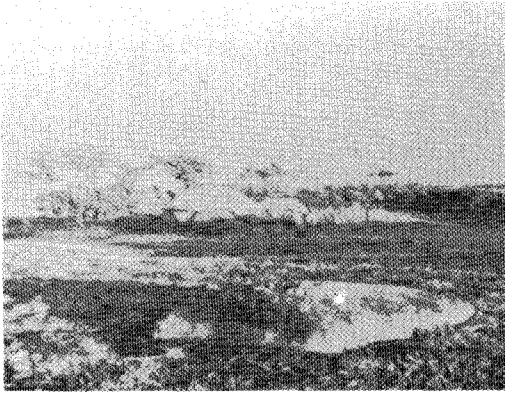


第一號 支石墓前面(東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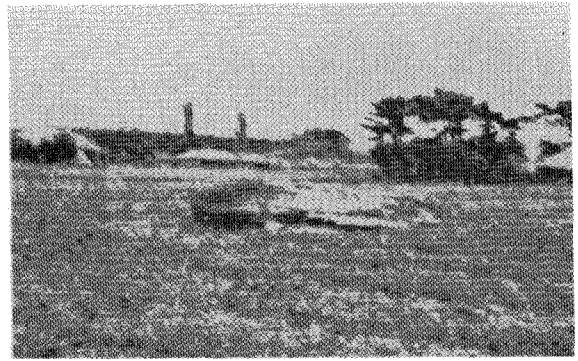


第一號 支石墓背面(西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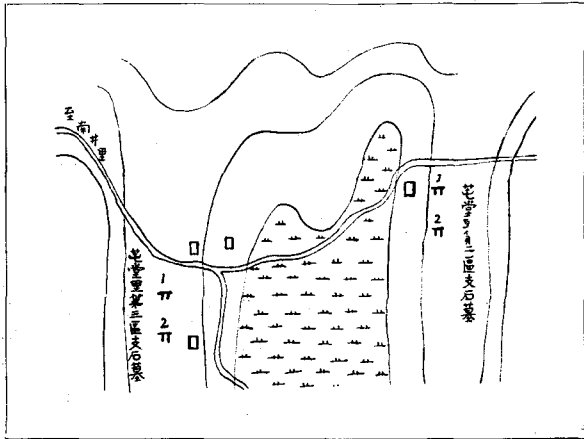
圖版 第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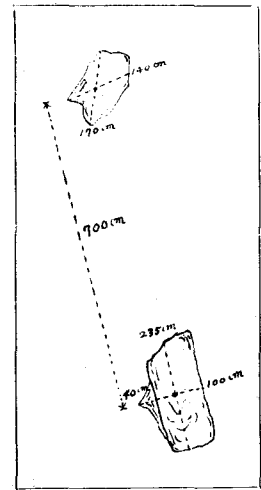
菴堂里 第3區 支石墓 第1號 支石墓



菴堂里 第3區 支石墓 第2號 支石墓



菴堂里 第2、3區 支石墓 配置圖



(4) 菴堂里 第3區 支石墓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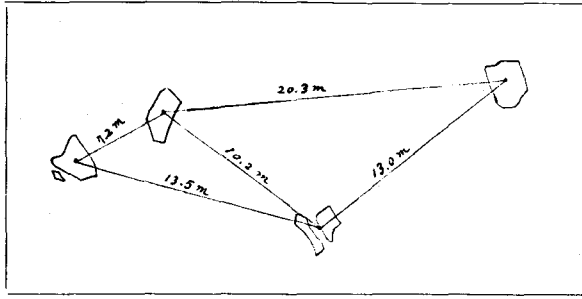


南井里 第1區 支石墓
(北側에서 본 支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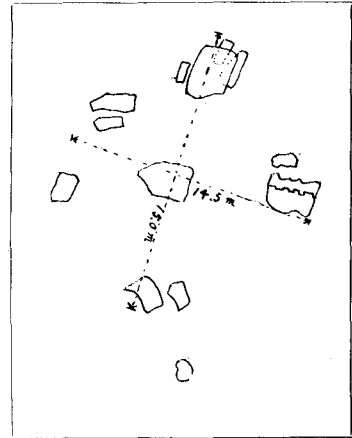


南井里 第1區 支石墓
(西南側에서 본 支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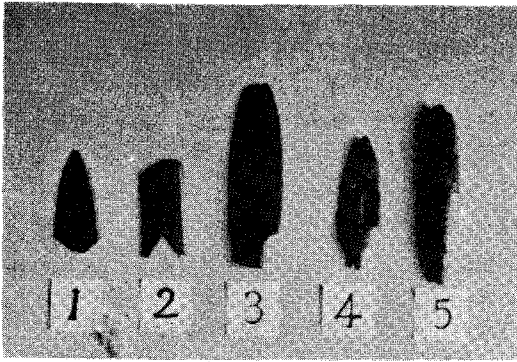
圖版 第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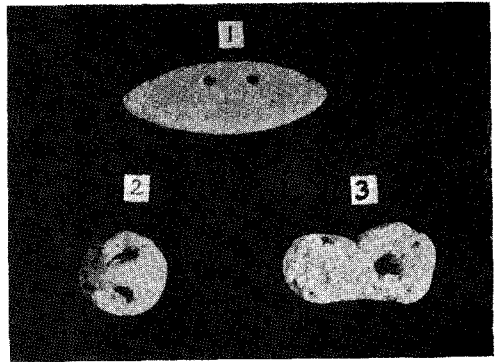
(3) 南井里 第2區 支石墓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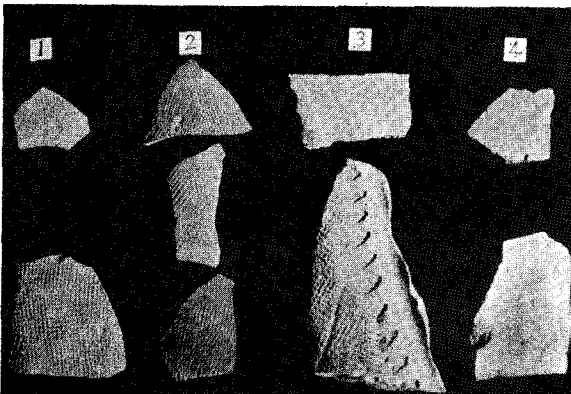
(2) 南井里 第1區 支石墓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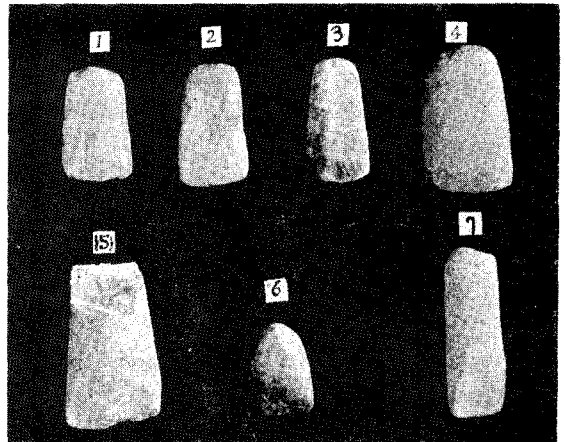
仁旨面 出土 磨製石鏃



仁旨面 出土 石刀・石錘



仁旨面 出土 土器破片



仁旨面 出土 磨製石斧